

산업안전용품 시장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 (주)웨빙코리아

취재 · 사진 | 임동희 기자(dhfree@safety.or.kr)

웨빙띠, 수직형추락방망 등 혁신적인 제품 인기

추락예방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주)웨빙코리아. 이곳은 3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최근 산업안전용품 시장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근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 편리한 제품을 생산·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웨빙코리아를 찾아가봤다.

빠른 설치, 빠른 해체 가능한 제품 생산

이곳이 제품을 만들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다.

먼저 간편성이다. 건설현장은 업종의 특성상 선행공정과 후속공정의 간격이 좁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공정이 끝나면 바로 후속공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곳은 빠른 설치, 빠른 해체를 우선으로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한다. 안전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설치·해체가 용이하다면 공정의 흐름을 원활히 이어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설 설치 근로자들의 안전도 그만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바로 변화다. 이곳은 제품의 혁신을 꾸준히 추구한다. 새로운 기술과 소재가 있다면, 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부지런히 수렴하고 이를 제품개발 시 최대한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 대부분은 기존 제품과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곳의 회사명을 딴 웨빙띠, 수직형추락방망, 신호등라운드슬링벨트 등이 대표적인 예다.

철골파이프 대응의 띠



안전난간대를 띠로 막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 이라고 할 수 있는 '웨빙띠'는 난간대의 파이프를 대신하는 제품으로, 폴리에스터 재질을 가지고 있는 띠 형태의 제품이다. 접근 금지방지책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장강도를 지니고 있는 것과 동시에 가볍고 얇아 설치자재의 인양, 적재, 시공 등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걸려, 규격, 인장강도, 문구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가운데 시인성이 뛰어나, 건축현장에서는 접근방지 외에도 구획정리, 야간통행안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철골 대응으로 '띠'가 사용될 수 있다는 개념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홍보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을 뿐, 위의 효과들이 입소문을 타고 커지면 앞으로 이의 활용도는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웨빙코리아 김시환 대표이사

“제품에 현장의 목소리 담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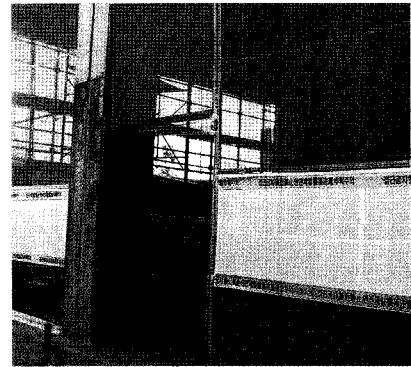
안전에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나가는 방향도 100%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웨빙띠를 예로 봐도 철골파이프가 옳을 수도 있고 우리 섬유질(폴리에스터)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자재의 효율적인 결합입니다. 두 자재가 효용이 돼서 코드가 될 때 안전은 보다 철저하게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웨빙코리아는 이같은 생각아래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면서 제품을 개발·생산해 나가겠습니다. 또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안전난간대와 분진망을 한 번에

보통 도심지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대 외에도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 분진망까지 설치한다. 여기에 안전네트도 설치하는 건설현장이 많다. 이런 현실을 감안, 웨빙코리아는 ‘수직형추락방망(일체형)’이라는 제품을 내놓았다. 쉽게 말해 분진망을 안전난간대와 한 것이다.

이 제품은 난간대와 안전네트, 분진망의 중복시공을 피해 설치비용 및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파이프 난간대 및 러셀망 시공에 비해 경제성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앞으로 시장을 뒤흔들 제품”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기대가 모아지는 제품이다.



5톤 하중의 라운드슬링벨트



‘신호등라운드슬링벨트(엘리펀트)’도 좋은 효용이 예상되는 제품이다. 기존 라운드슬링벨트와는 다르게 신호등 형태의 외피와 내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형태상의 교체주기(3P/녹색 - 2P/노란색 - 1P/적색 - 심사노출/교체)를 정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라운드슬링벨트의 기본하중이 4톤인 것에 비해 이 제품은 5톤의 기본하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도와 안전성 면에서도 탁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S 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역시 안전성과 설치 시 용이성, 그리고 경제성 등에서 타 제품과 차별화돼 있다고 웨빙코리아 관계자들은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변화 추구

유엔화학공업, 조양, 조일... 이는 1980년대까지 번성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냥제조회사 이름이다. 이들은 라이터라는 신제품이 개발되면서 급격히 쇠퇴하다가 지금은 자취를 감춘 회사이기도 하다.

이는 혁신과 변화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이를 항상 가슴속에 새겨놓고, ‘발상의 전환’, ‘혁신’을 회사 차원에서 꾸준히 추구해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변화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에 기존의 안전제품들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좀 더 발전된 제품을 개발·생산해나가기 위해 하고 있다.

이곳의 ‘溫故知新(온고지신)’의 정신이 앞으로 산업안전용품 시장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